

“헬기 사격 없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전두환 두번째 광주재판 열려
피터슨 목사와 헬기사격 목격
해군 군의관 등 5명 법정 증언

“육군 항공본부가 시민을 향해 무작위로 총을 쏘느냐,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명 예훼손 사건 2차 공판기일이 13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80년 당시 해군 제3해역사령부 소속 군의관(대위)이자 침례교도였던 김운기(67) 씨는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자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석양 무렵 목사님이 2층 발코니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목사님이 ‘어떻게 헬기에서 시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느냐?’고 나에게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저는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공포탄 내지는 광주천을 향해 위협 사격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택 2층과 2km~3km 떨어진 도청·전남대병원 방향에서 헬기 한 대가 제자리에서 돌면서 총을 발사하는 것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탄에 맞아 다친 남현애·이광영 씨가 1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회고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헬기사격 목격담을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며 빛이 번쩍하는 섬광이 발생했다”며 M16 같은 자동소총을 쏜 것으로 추정했다.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 피터슨 목사와 부인인 바바라 피터슨 여사가 그동안 저서 및 검찰 조사에서 김씨와 함께 헬기 사격

을 본 사실이 없는 점, 일부 세부 진술이 피터슨 목사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을 토대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가 군인이었으니 피해가 갈까 봐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씨는 “1995년 신문을 보고 5·18 단체

가 마련한 기자회견장을 찾아갔다”며 “기자들이 목사님에게 ‘검찰 조사와 증언이 다르다’는 취지로 질문하길래 ‘선교사님 헬기에서 총 쏜 것 혼자 봤소? 혼자 봤으면 사실이고, 둘이 봤으면 거짓말입니다’고 했다”고 밝혔다.

승려로 활동하다가 독재 반대 시위에 동참했던 이광영(66) 씨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를 전후해 군용 지프를 타고 광주 남구 월산동 로터리 인근을 지나다가 헬기 사격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군에서 소총과 자동소총, 기관총 등을 다루봤다는 김씨는 “50~100m 상공에서

총을 쏘 총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험했던 기관총 소리와 비슷했다. 총알이 가로수를 관통해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1980년 5월 21일 남편을 찾아 천변을 다니다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전 선덕씨, 광주에 출동한 502 항공중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최형국 씨, 옛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헬기에서 쏜 총에 맞았다고 진술한 남현애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다.

/김태엽 기자 esaca@

‘뒤뚱뒤뚱’ 오리가족 여정 지킨 경찰

광산경찰, 자연으로 돌아가는 ‘칭둥오리 14남매’ 경호

“어미 오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후 나들이에서 돌아오거나 쇼핑물로 향하는 차들이 몰린 광주 광산구 수완동 입방울대로가 예고 없이 통제됐다.

경찰관은 영문도 모른 채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 겨울나기를 마친 칭둥오리 가족의 사정을 일일이 설명했다.

어미 오리 공무니를 쫓는 새끼 오리 14마리가 뒤뚱뒤뚱 서툰 걸음마로 왕복 10차로를 가로지르는 데는 지루한 시간이 소요됐다.

가던 길을 멈춘 운전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리들을 인내심 갖고 지켜보거나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

오리 가족의 여정을 경찰까지 나서서 지키게 된 사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풍영정천 인근 한 아파트 옥상에 날아든 어미 칭둥오리가 겨우내 알을 품어 새끼를 부화시켰다.

자연으로 돌아가려 길을 나선 오리 가족은 몸속 깊숙이 각인된 습성대로

지상 20층인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뛰어내렸다.

어미는 애써 키워낸 새끼를 모두 잃었다.

홀로 살아남은 어미는 겨울이 오자 아파트 옥상으로 돌아와 다시 새끼를 길러냈고, 또 한 번 비극이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정을 지켜본 주인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지난겨울에도 찾아온 어미와 새끼들을 지켜주기로 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강이나 저수지로 이동할 때가 되자 비닐을 이어 붙여 만든 ‘탈출통로’를 옥상에서 지상까지 연결했다.

오전 7시 30분 아파트 옥상을 떠난 오리 가족은 약 10시간 만에 직선거리로 200m 남짓한 풍영정천에 도달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었기에 장시간 회의를 거쳐 긴급도로통제 결정을 내렸다”며 “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시민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주후택 기자 htjoo@

낙지 훔쳐먹은 60대, 입 주변 먹물 때문에 떨기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화물차량 적재함에 둔 낙지를 훔쳐먹고 시치미를 떼던 60대 남성이 입 주변에 묻은 먹물 때문에 떨기를 잡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장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전통시장 도로에서 있던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시가 2만원 상당의 낙지

3마리를 훔친 혐의다.

낙지 주인 김모(36) 씨는 장 씨가 차량 적재함에 손을 넣어 낙지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가며 경찰에 신고했다.

장 씨는 낙지를 훔친 사실을 묻는 경찰관에게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땀지만 장 씨 입 주변에는 먹물이 묻어있었다.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영·호남 ‘우정의 타임캡슐’ 20년만에 열린다

전남-경남교육청, 1999년 묻은 타임캡슐 17일 개봉
주인공 약속카드 낭독, 성장과정 다큐 상영 등 행사

20년전 영·호남 학생들의 우정을 다지고자 묻은 타임캡슐이 올해 마침내 열리게 됐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영·호남 학생들의 ‘꿈과 우정의 타임캡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담양에 있는 전남도교육연수원에서 개봉된다.

같은 시각 경상남도교육청도 경남 의령 소재 경남학생교육원에서 역시 20년 전 묻은 타임캡슐을 연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지난 1999

년 5월 26일 영·호남 학생들의 우정을 나누고, 새천년 주역이 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타임캡슐을 봉인해 전남교육연수원과 경남학생교육원(당시 경남덕유교육원 의령분원) 앞마당에 각각 묻었다.

이 캡슐에는 당시 전남과 경남의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1천72명(전남 559명, 경남 513명)의 꿈과 희망이 담긴 약속카드가 봉인돼 있었다.

이들은 카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혈액형, 자기소개, 장래희망, 20년 후의



1999년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한 ‘꿈과 우정의 타임캡슐’ 봉인식

나의 모습, 경남(전남) 친구에게 바라는 글 등을 B5 크기 용지에 작성한 뒤 ‘꿈과 우정의 약속카드’로 코팅했다.

전남교육청 타임캡슐 개봉행사에는 20년 전 타임캡슐에 ‘꿈과 우정의 약속카드

를 봉인했던 주인공 50여 명(전남 44명, 경남 1명과 가족 등)이 성인이 된 모습으로 참석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세월의 흐름을 직접 보여준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남교육연수원 앞마당에서 타임캡슐을 발굴한 뒤 200강당으로 옮겨 개봉식을 가진다.

특히, 개봉식에서는 당시 전남과 경남의 약속카드 주인공 두 명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약속카드를 낭독하고, 또 다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가 마련돼 있다. 타임캡슐 주인공 중 한 명의 20년 동안 성장과정을 담은 영상물도 상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전남교육청은 개봉한 타임캡슐과 약속카드를 전남과학교육원에 임시 보관한 뒤 설립 예정인 전남교육박물관(가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타임캡슐 표지석은 원래의 자리인 전남교육연수원에 보관한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사람이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